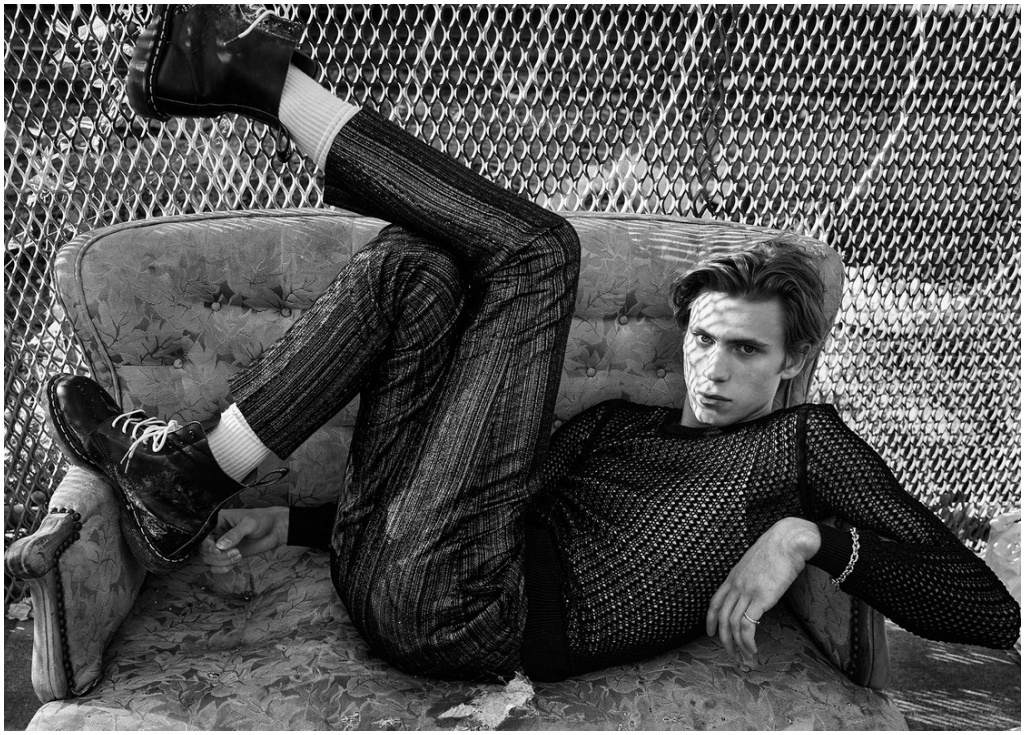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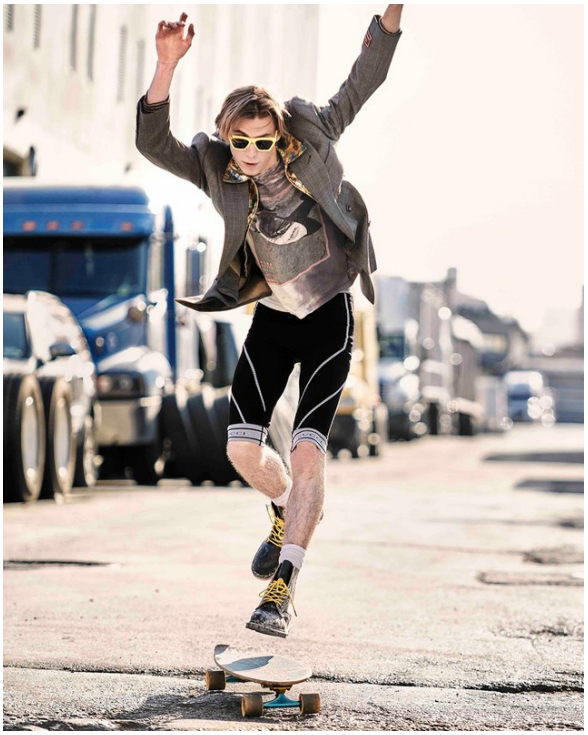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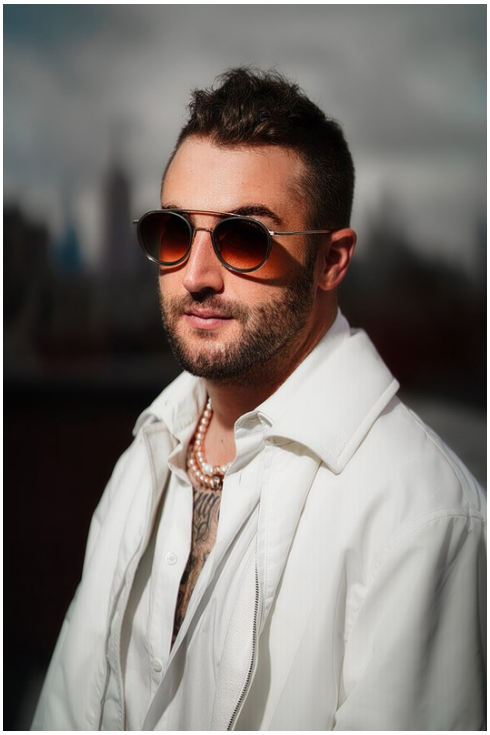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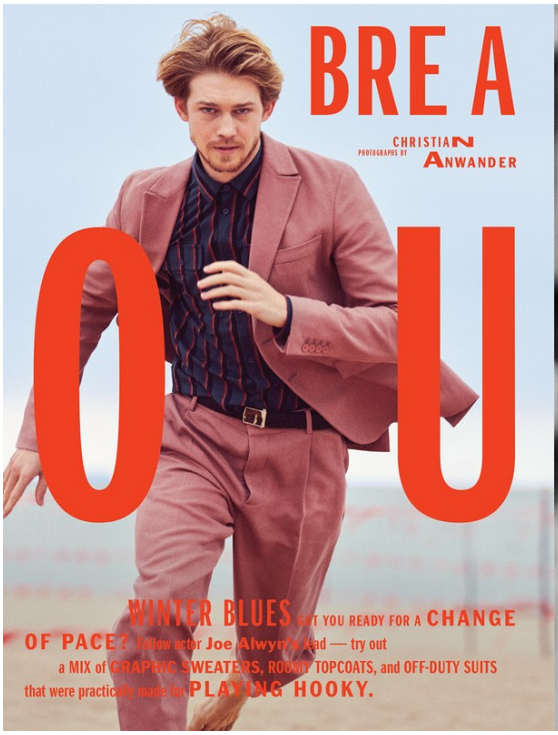
www.art-dep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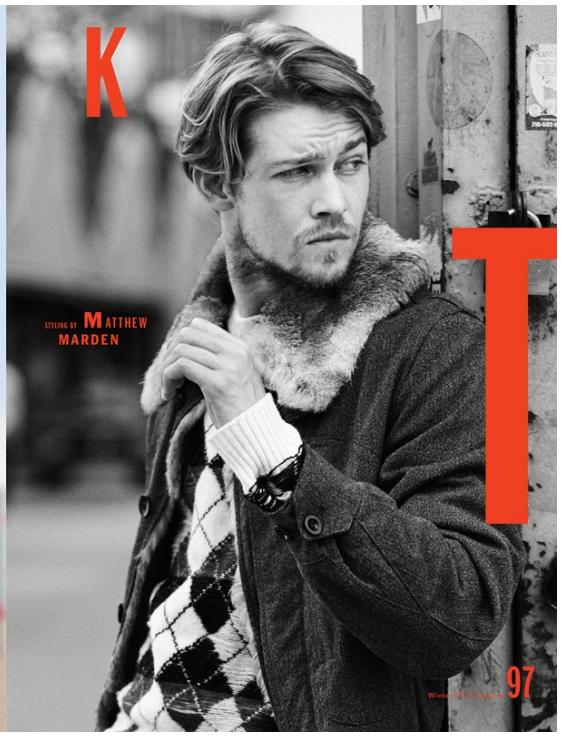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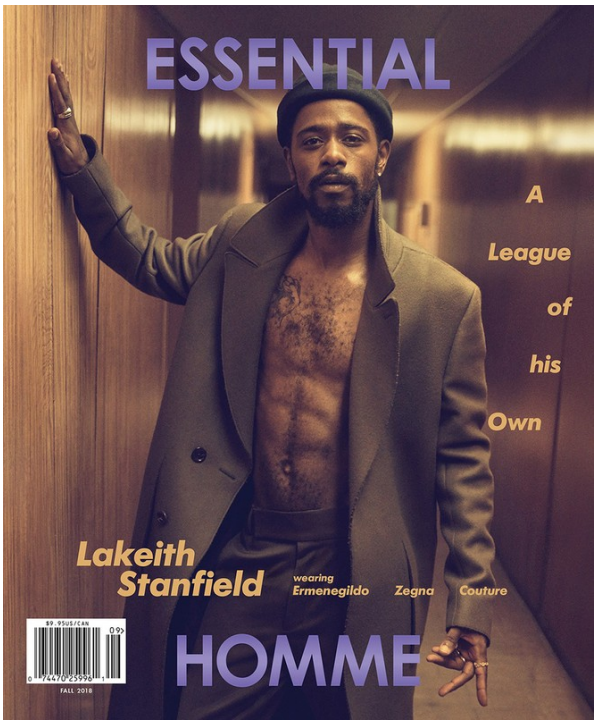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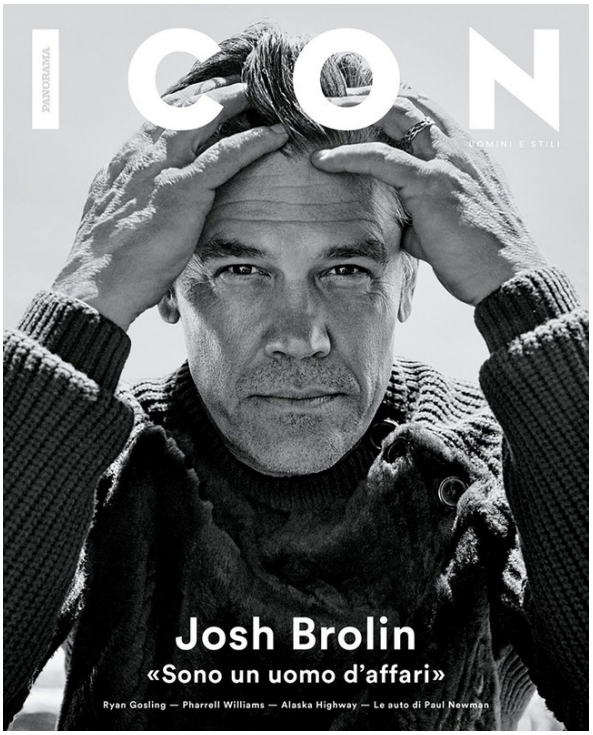
www.art-dep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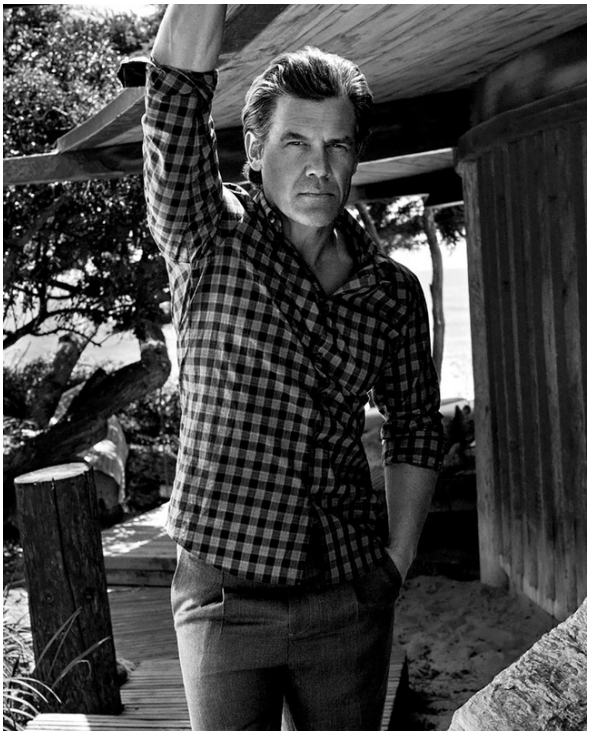
Art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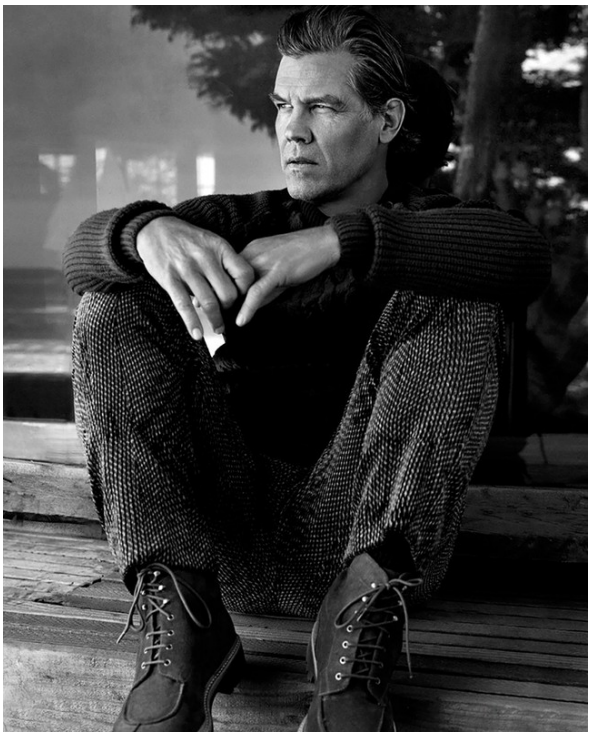
Scott McMa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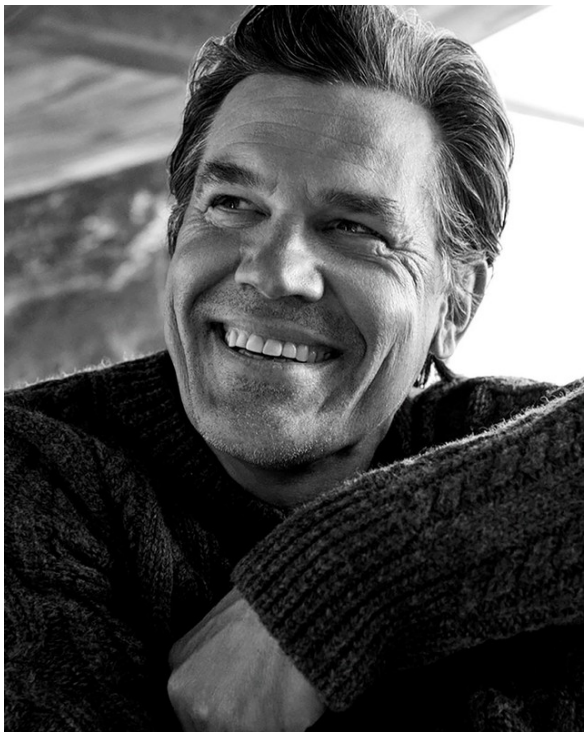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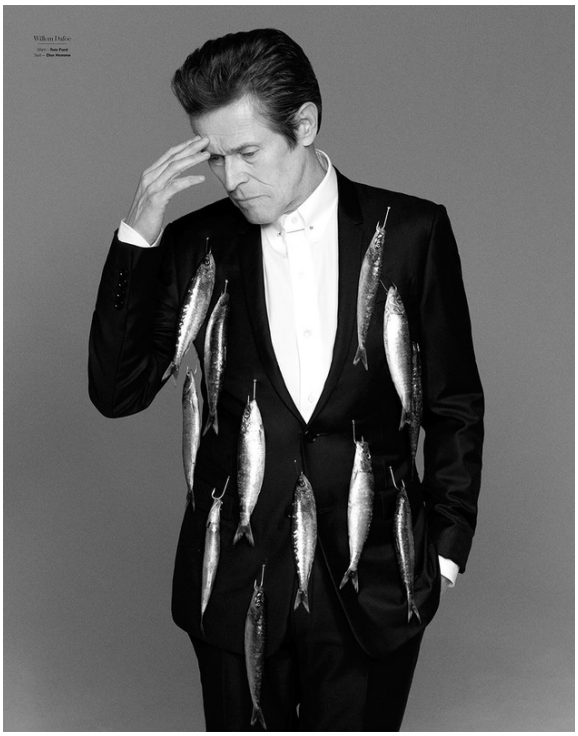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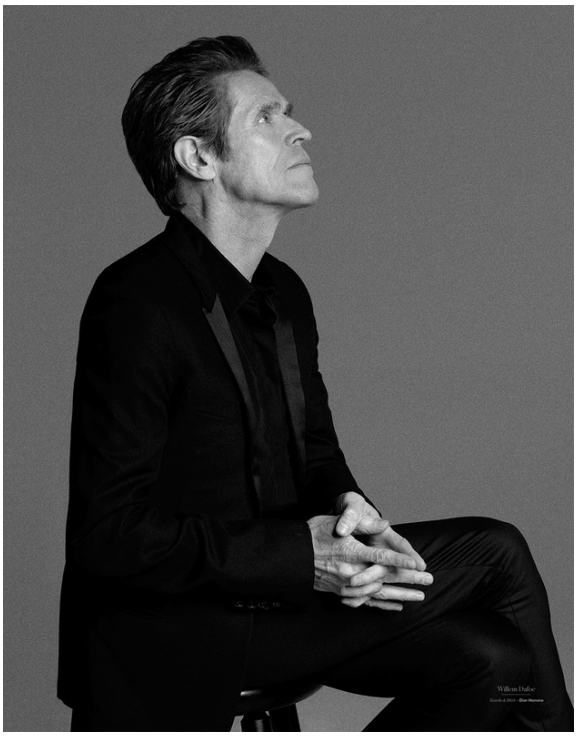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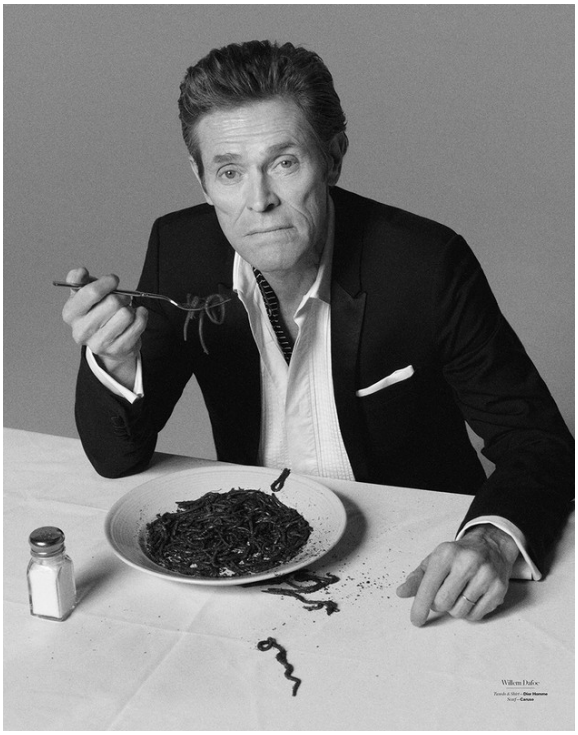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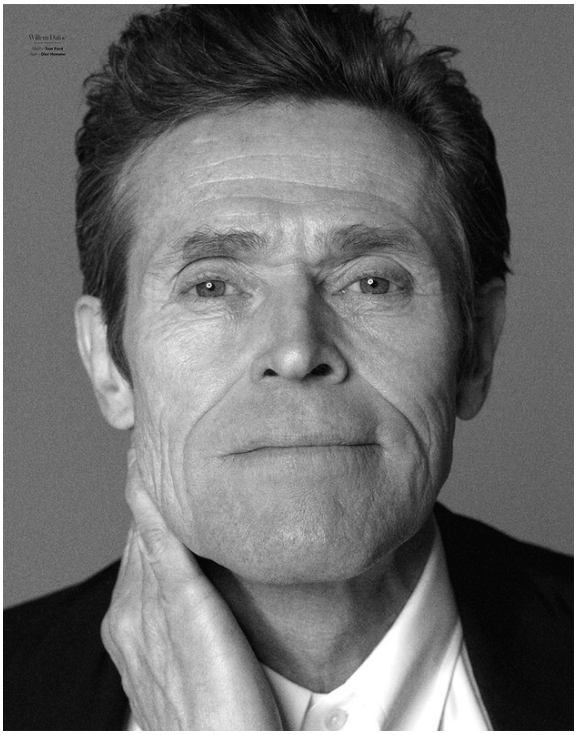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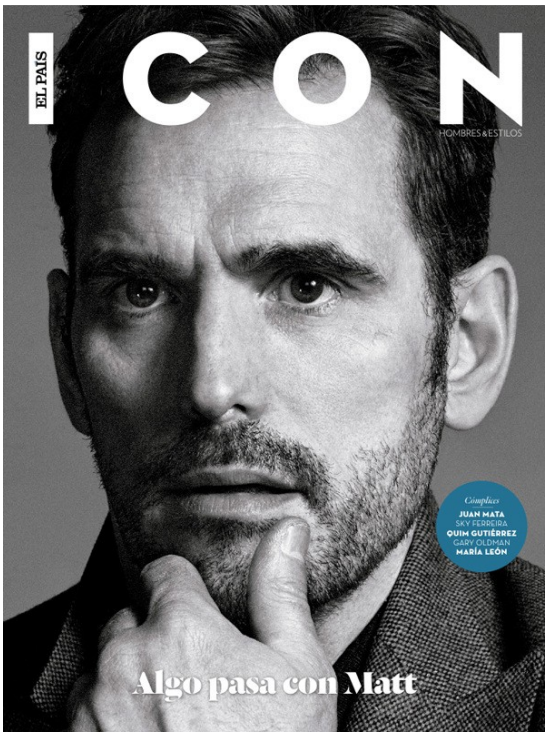
Scott McMa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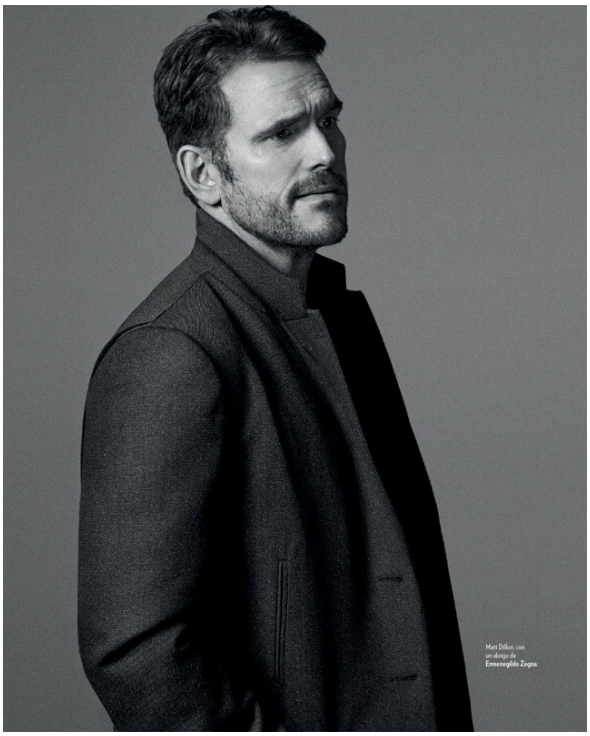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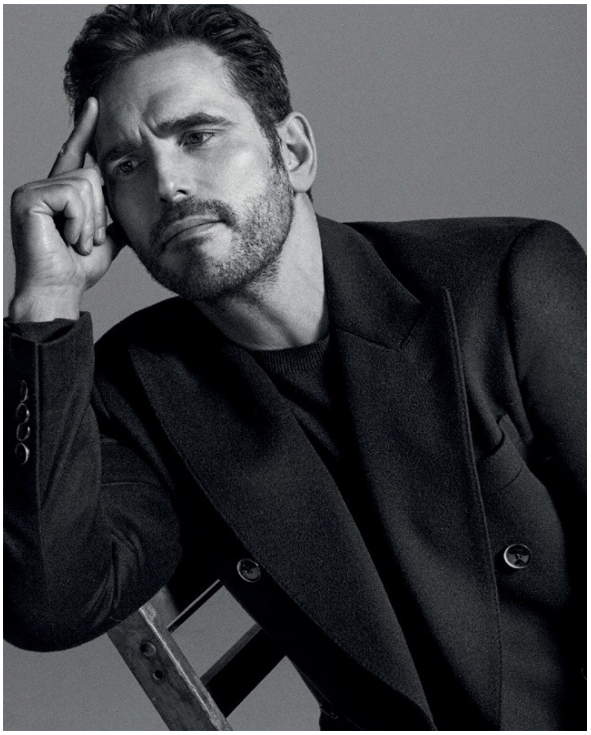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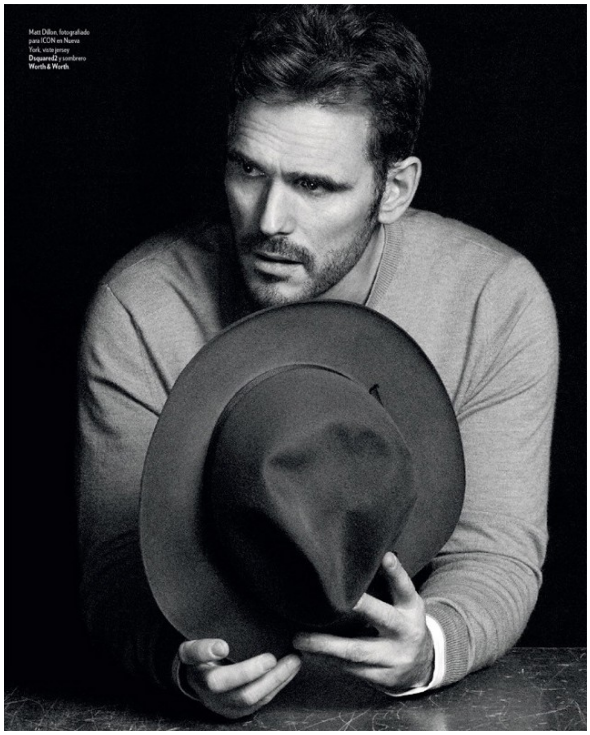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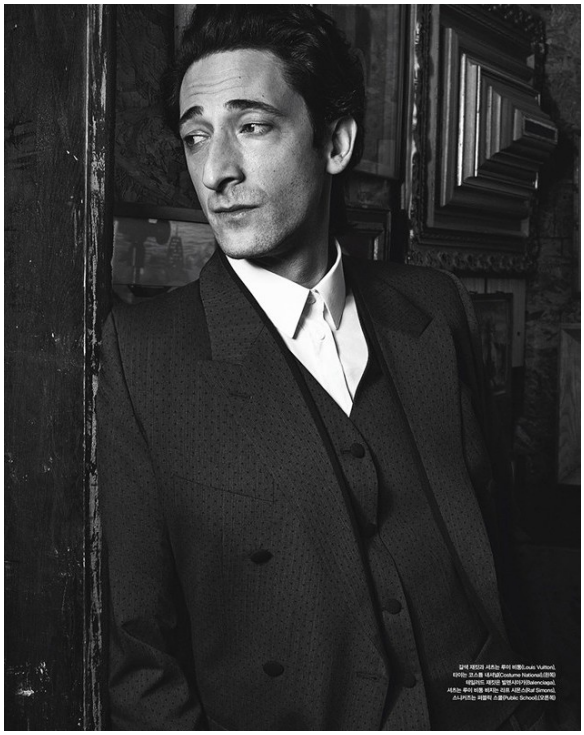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우상이었다. 열한 살 땐 '아메이징 에드리언'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친구들 앞에서 마술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하늘난 마술가는 흠뻘한 연기자이기도 하다. 그는 마술을 통해 연기를 배운 셈이다.

에드리언이 실존 인물을 연기한 건 처음이 아니다. 최연소 오스카 남우주연상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겨준 〈아카니스트〉의 찰리 다슬로프 스틸 만을 비롯, 루디 앨런의 영화 〈어브노멀 인 파리〉에선 살바도르 달리로 분해 프랑한 연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실존 인물을 연기할 때 좋은 점은 참고가 될 만한 정보가 많다는 거죠. 어떤 역할이든 구극적으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인생이라는 드라마와 삶에 대한 통찰, 인간적인 진실이에요. 모든 작품의 선택 기준은 그 작품이 나와 관객에게 무엇을 말해고 있는가에 달려 있죠." 에드리언이 연기한 이 역사적인 인물들 사이에 공통된 부분이라면 모두가 예술가라는 점이다. 역사 교수이자 화가였던 아버지와 음대 사진학과인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은 그는 모든 예술을 사랑하는 남자다.

특히 즐하는 그가 영화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르다. 에드리언은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동안 즐거움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스파디오에선 부루누나 쇼츠즈 오브 비스치의 같은 그가 좋아하는 힙합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MOJ 부에이 감우기 세상을 바나기 힘든 일이지만, 이 전설의 힙합 뮤지션과 에드리언은 영화 〈클램〉에서 함께 배우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전 뉴욕 퀸스와 브룩크스에서 자랐어요. 힙합은 80년대 컬처 신의 뿌리였죠.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촬영이 없을 때 그는 음악을 만들고 프로듀싱하며 시간을 보낸다. 우생 클럽 멤버 프레디Z.A.K는 친구이자 그의 음악적 멘토로, 프리이랜에서 랩곤이 되는 스타일 비트로 랜드는 등 생활상 작업에도 영상이다. 사진 역시 그의 오랜 관심사 중 하나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인적이는 거면 및 촉신의 일상을 공개하는 데 조금씩 흥미를 느끼는 중이다. "어떤일은 제가 원청 싫어하고 믿어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친에 제 모습대는 거라가 맞아요. 전 프리이랜서들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라면, SNS의 세계에 실짜 빠져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팬들에게 보다 진실된 밝고 카메은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하은 방법이니까요."

패션에는 어이 오래전부터 그를 열렬히 사랑해왔다. 에곤 실레의 그림에서 특 튀어나온 듯 어떤지 슬프고 불안한 10대기를 외로로 힙합을 즐기는 뉴욕키어른 그는 스피드광이기도 하다. 스무 살 무렵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 크게 사고가 난 일화나 오스카상 수상을 기념해 스스로에게 허이 1억을 선물했단 얘기는 유명하다. 로브레 911 터보와 함께 파라와 마드리드, 카사블랑카를 기로지르는 슈퍼카 랜터에 참가한 적도 있다. 게다가 그는 개통로 수마트 일을 즐 아는 몇 안 되는 남자다. 에드하로 집도 돼나의 모델이었던 그는 2012 F/W 프리다 스파린 제이 올드먼과 함께 런웨이에 오르기도 했다. 붉은색 코트에 같은 색깔로 물들인 둘드라 선글라스를 낀 그는 시상식 레드 카펫 스타일의 갱원크를 선보였다. "전 옛된 스타일과 개성을 사랑하죠. 그래서 늘 근사하게 차려입고 싶지만 오늘처럼 이동하느라 집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땐 간편한 게 최고예요. 대신 좋아하는 한 가지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죠. 개인적으로 전 시계를 사랑해요. 특히 몇가지 측되는 거의 매일 차고 다녀요."

타고난 패션 감각은 연기를 할 때도 꽤 도움이 된다. 그는 우리가 입는 옷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인물의 다양한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옷차림은 생동감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머리 모양이나 수염 역시 마찬가지다. 그때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 그무에가 있다. 오늘 같은 화보 촬영론 아니라 영화 현장에서도 그무에의 역할은 중요하다. 만약 에드리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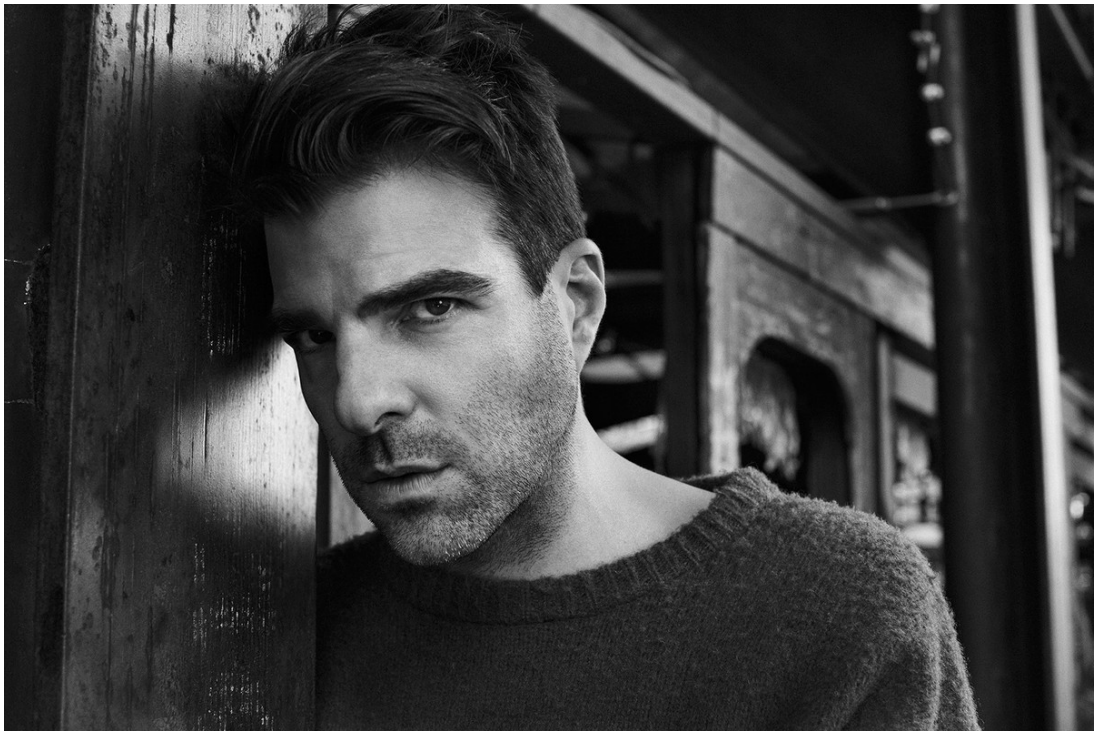
Scott McMa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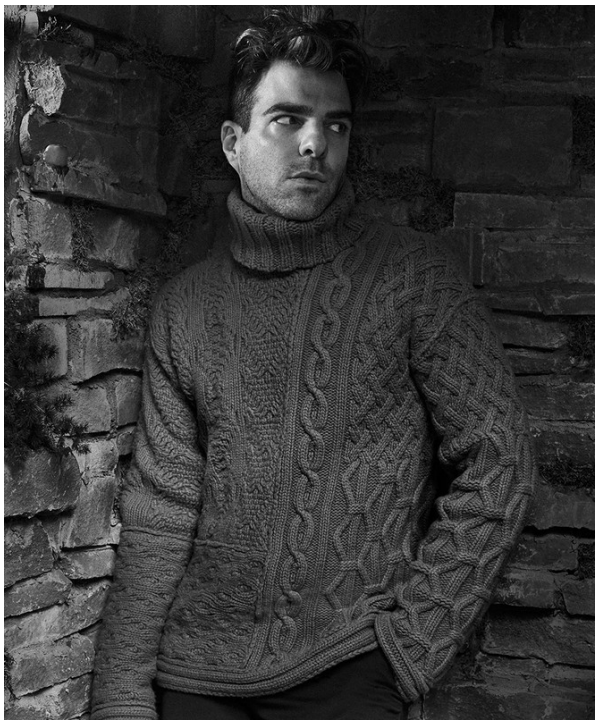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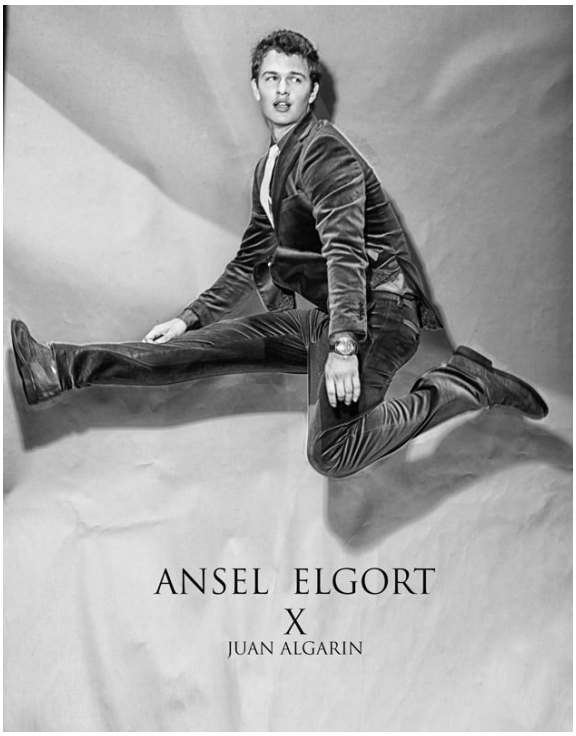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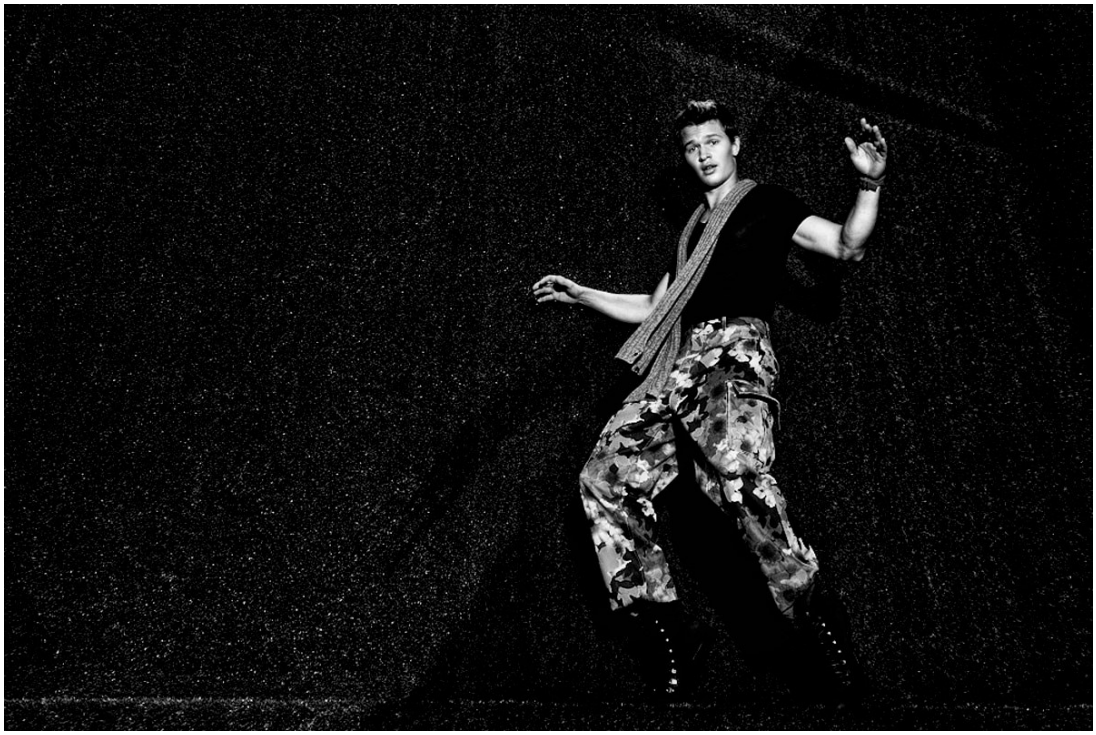
www.art-dep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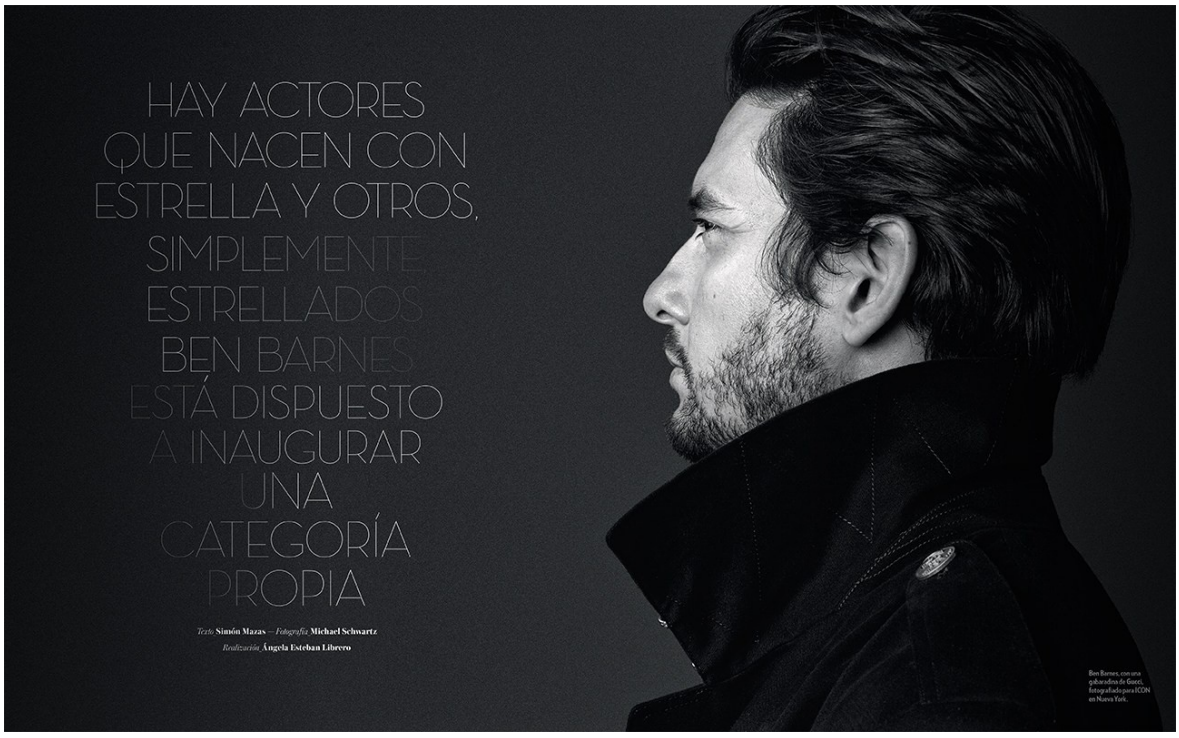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Art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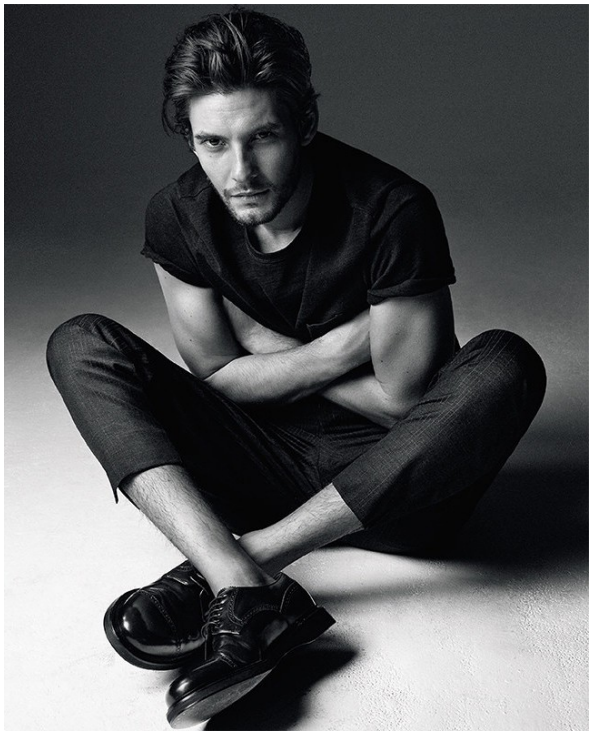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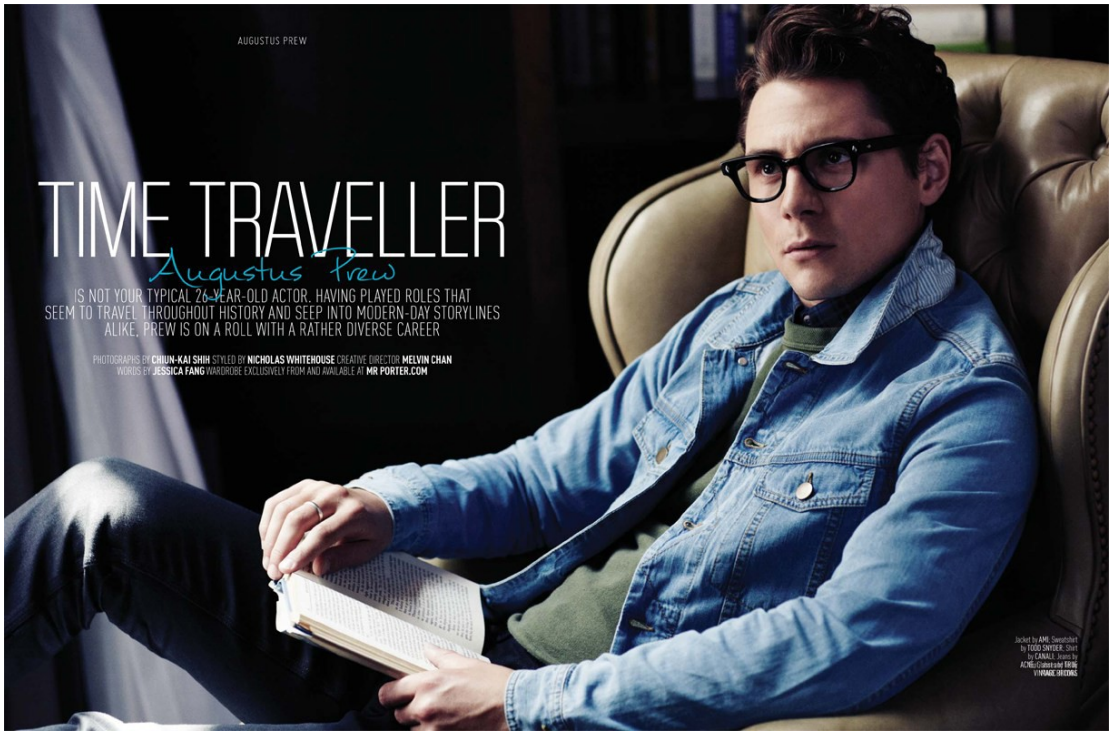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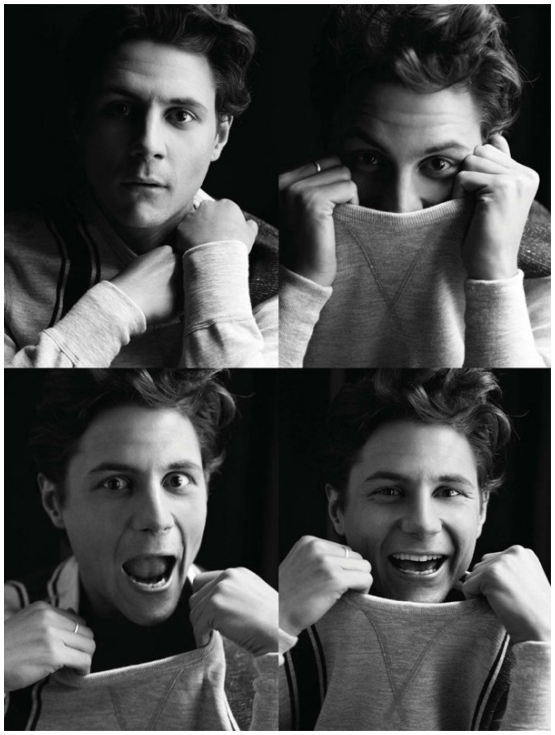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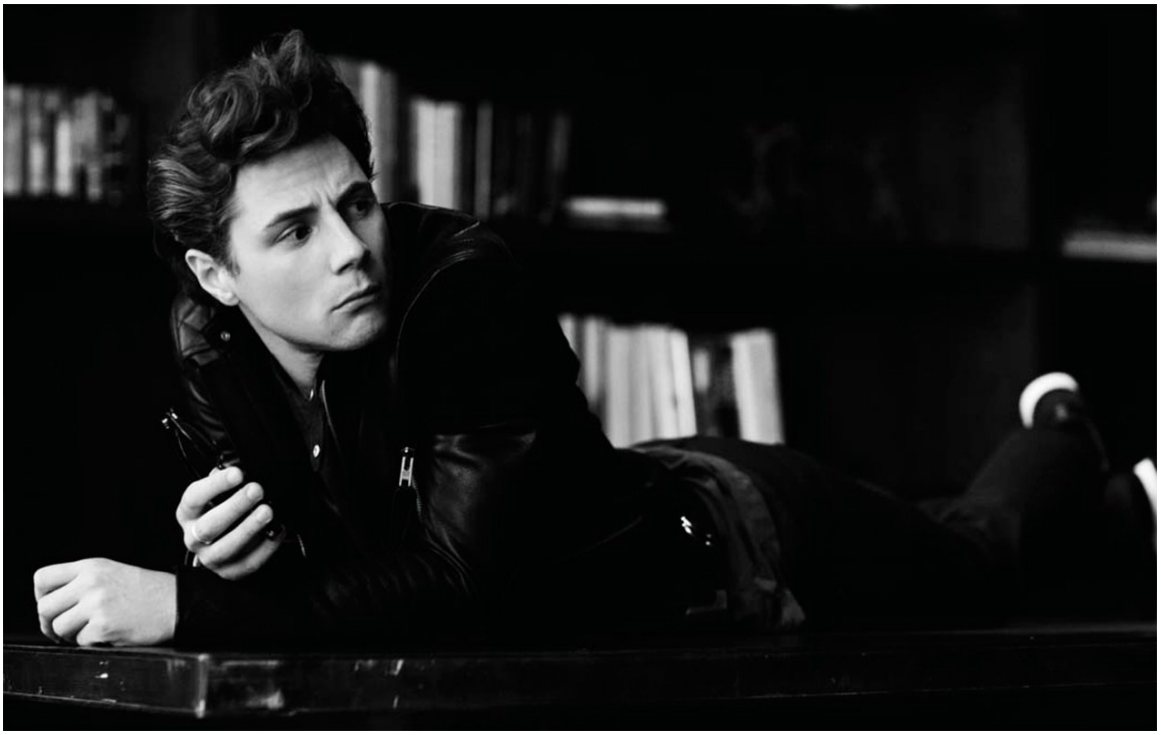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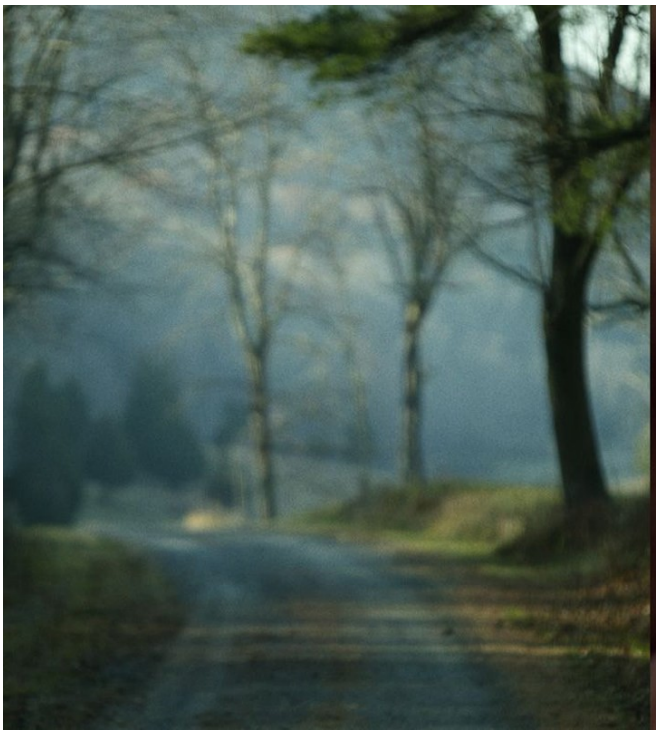
www.art-dep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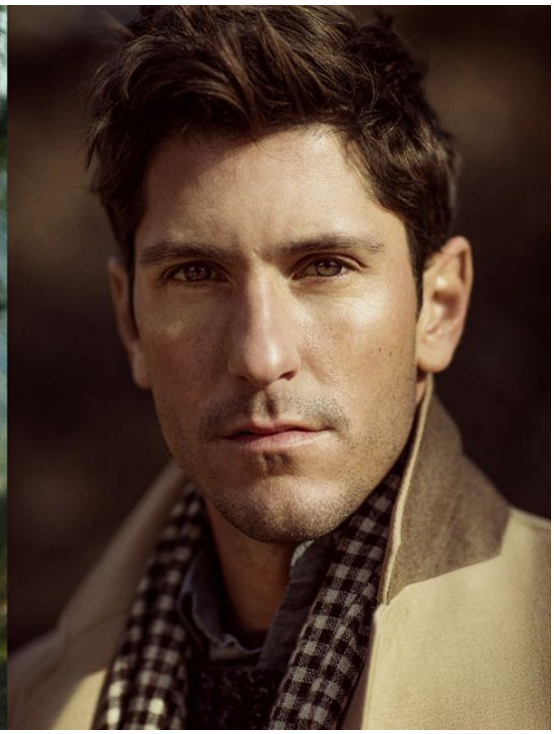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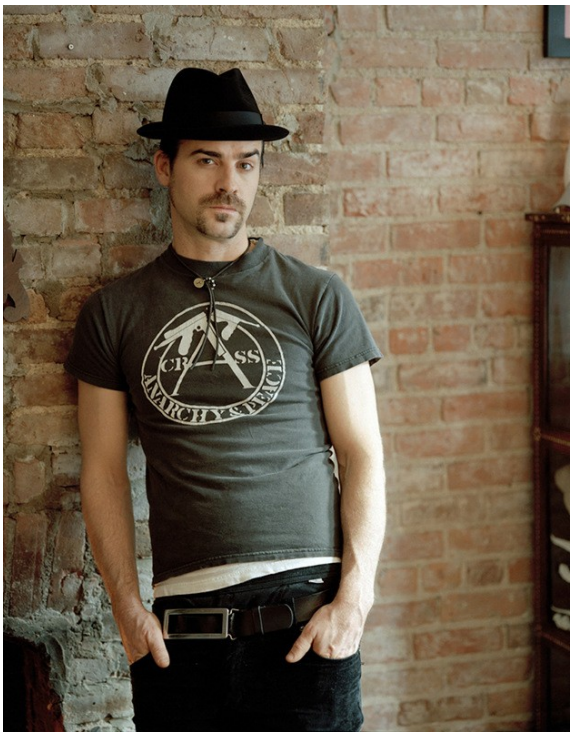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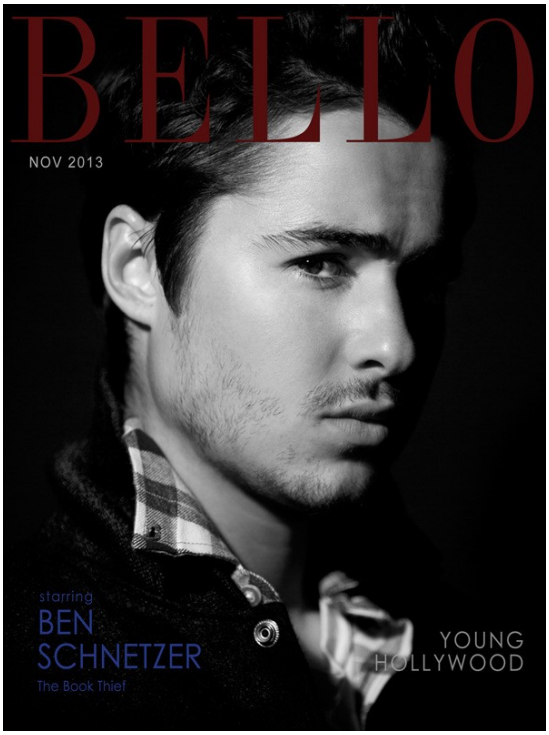
Art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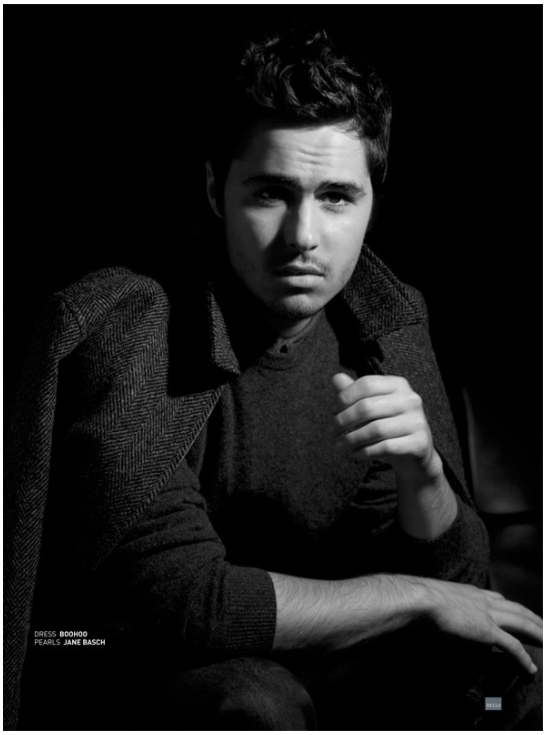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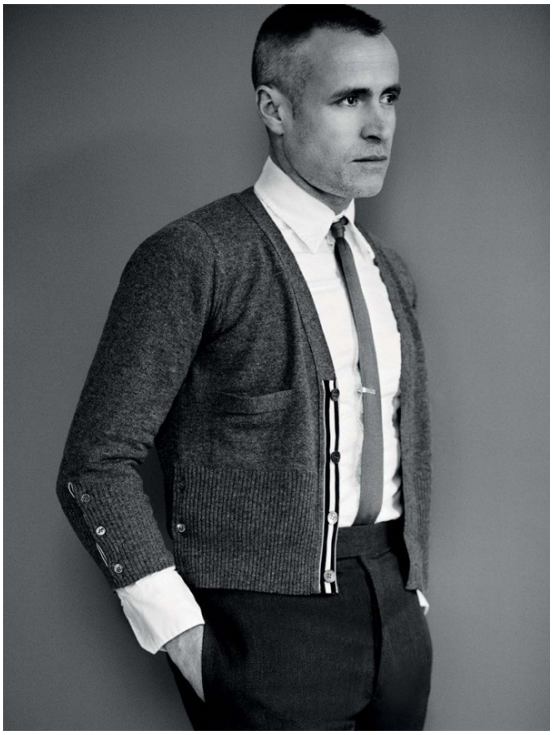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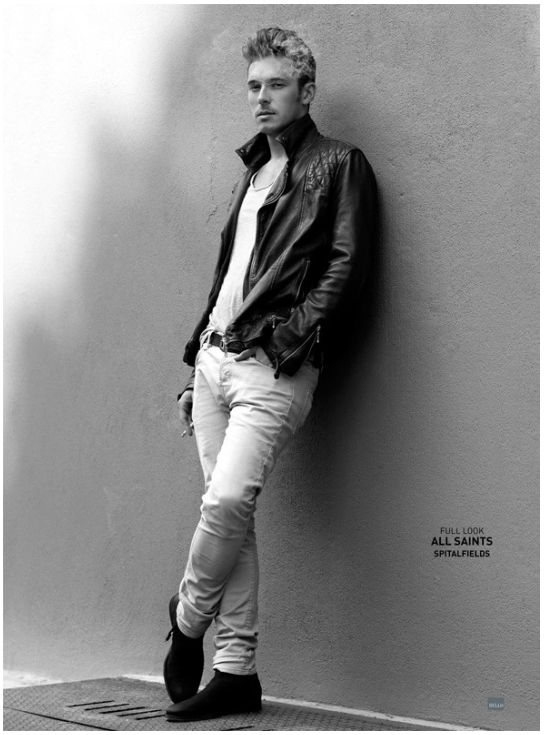
Art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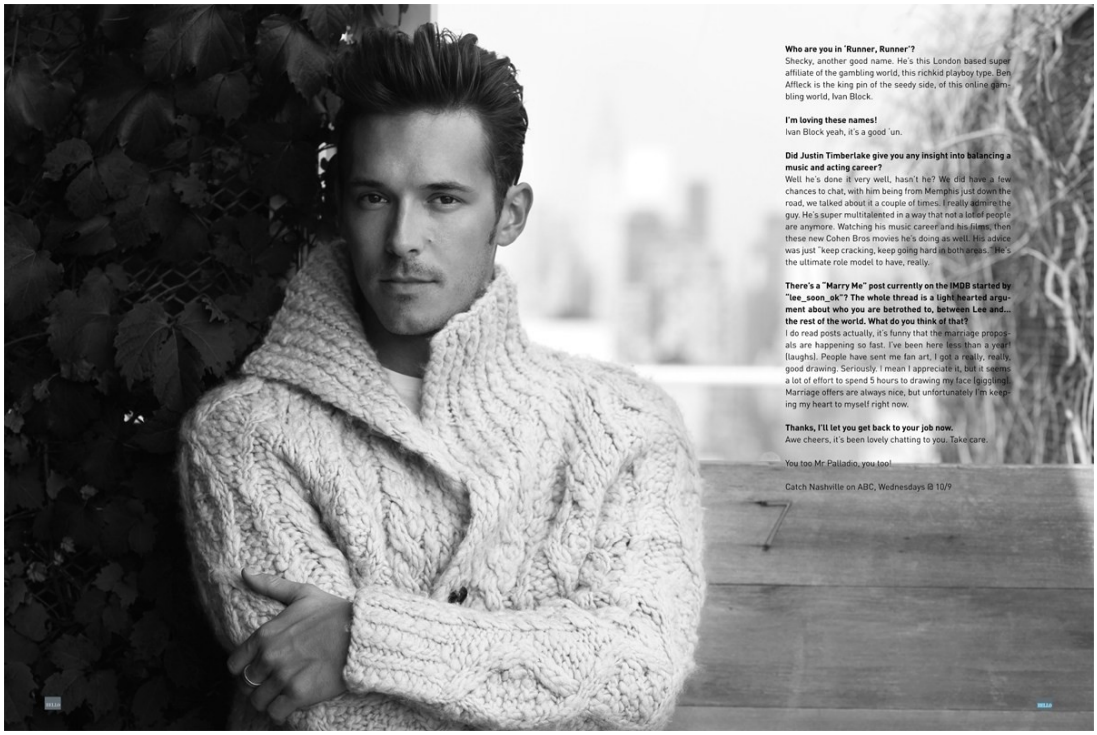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Who are you in 'Runner, Runner'?
Shecky, another good name. He's this London based super affiliate of the gambling world, this richkid playboy type. Ben Affleck is the king pin of the seedy side, of this online gambling world, Ivan Block.

I'm loving these names!
Ivan Block yeah, it's a good 'un.

Did Justin Timberlake give you any insight into balancing a music and acting career?
Well he's done it very well, hasn't he? We did have a few chances to chat, with him being from Memphis just down the road, we talked about it a couple of times. I really admire the guy. He's super multitalented in a way that not a lot of people are anymore. Watching his music career and his films, then these new Cohen Bros movies he's doing as well. His advice was just 'keep cracking, keep going hard in both areas.' He's the ultimate role model to have, really.

There's a "Marry Me" post currently on the IMDB started by "lee_soon_ok"? The whole thread is a light hearted argument about who you are betrothed to, between Lee and... the rest of the world. What do you think of that?
I do read posts actually, it's funny that the marriage proposals are happening so fast. I've been here less than a year! (laughs). People have sent me fan art, I got a really, really, really good drawing. Seriously. I mean I appreciate it, but it seems a lot of effort to spend 5 hours to drawing my face (giggling). Marriage offers are always nice, but unfortunately I'm keeping my heart to myself right now.

Thanks, I'll let you get back to your job now.
Awe cheers, it's been lovely chatting to you. Take care.

You too Mr Palladio, you too!

Catch Nashville on ABC, Wednesdays @ 10/9

Scott McMa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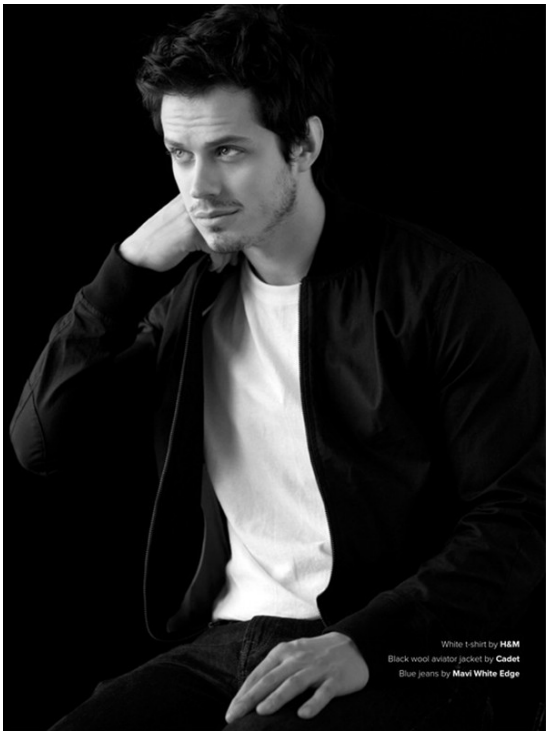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Scott McMahan

www.art-dept.com

Art Department

Fairchild will repeat certain movements, like this rakish slide, throughout the show. **"The motifs you create for an individual character," Wheeldon says, "reflect the way he behaves, his voice, his personality."**

Scott McMahan

www.art-dept.com